

## 발해의 미용문화연구

석은경<sup>\*,†</sup> · 채금석

\*숙명여대 의류학과 박사과정, 숙명여대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Balhae Beauty Culture

Eun-Kyoung Suk<sup>\*,†</sup> · Keum-Seok Chae

\*Ph. 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1. 11. 접수/2008. 2. 11. 채택)

#### Abstract

Balhae was an ancient Korean kingdom that existed almost 1,300 years ago. It was a dynamic time in the Korean history when the national strength was building up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thereby called as "Haedongseongguk, the powerhouse in the East". Balhae had dominated parts of Manchuria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the late 7th century and the 10th century, occupying the center stage of the northern Korean history. It serves as a window to the East Asia in the present as well as in the past. Yet, due to its geography spanning from the North Korea to Kilin Province of China to part of Heilongjiang Province and to the Littoral Province of Siberia, Balhae has been the center of historical disput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that insist it is part of each of their own history. China argues that it was a prefecture of the Tang Dynasty, established by the Mohe, not a successor to Goguryeo, which is a China-oriented viewpoint of history. In addition, Russia recognizes Balhae as their first-ever medieval feudal state since the Littoral Province is now under their sovereignty. Therefore, the restoration of Balhae history is in line with the veritable establishment of the ancient Korean histor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mbrace inter-disciplinary achievements and to continue efforts to adopt them rather than to blame the shortage of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difficulty of the excavation of relics. If fashion is "a visual symbol" of our society, beauty culture serve as a mirror to reflect our civilization and culture directly or indirectly. Still, it is not easy to draw similarities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attributes of various cultures and civilizations partly because the essence of culture lies in diversity. Nevertheless, it is believed that cultural liaison as well as geographical liaison can be a medium to compensate for the limits of the foreign exchange history of Southeast Asia in 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and Balhae, by examining and speculating beauty culture that reflect their period. It was confirmed by various documents regarding Goguryeo out of relics, historical sites and documents. Mural paintings showed how the people of Balhae wore and accessorized themselves. They also allowed us to speculate their way of living. As the contemporary historians can assert that Balhae is part of the Korean history thanks to the realism scholar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o rediscovered the Balhae history and conducted practical researches, it is expected that researchers who study beauty culture contribute to completing the restoration of the Balhae history by thoroughly examining our history, costume and beauty culture.

**Key words** : Balhae history(발해사), Beauty culture(미용문화)

---

<sup>†</sup>Corresponding author: Eun-Kyung Suk

E-mail: eksuk37@hotmail.com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천 년을 남짓한 시간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발해는 북방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해동성국으로써, 우리민족의 활기찬 역사의 무대였다.

하지만, 발해의 영역은 지금의 북한과 흑룡강성일부, 중국의 길림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에까지 미쳐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 중심적 태도로 발해가 고구려 계승국이 아닌 당의 지방정권의 한 부분으로 비화 시키고 있으며, 연해주를 자국 영토로 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러시아가 세운 중세국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다.

또한 발해사는 사료부족과 조작된 사실들로 인하여 그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서, 그 왜곡정도가 심하다는 것이 발해사연구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특정민족, 그리고 특정시기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시대의 충분한 유물자료와 문헌자료라고 할 때, 발해의 문화와 시각적 상징을 표현하는 미용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는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적 분야에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발해사의 복원은 한국고대사 원류의 진정한 자리매김이라는 의미와도 상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사료와 유물발굴의 어려움만의 탓만 있을 것이 아니고 부단한 연구와 다양한 인접 학문의 성과를 받아들이고 서로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배선이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시각적인 상징'이라 할 때, 복식과 텀포를 맞추어 향장과 미용문화는 문명과 문화의 연계성을 직접,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문화의 속성이 다양함에 있듯이,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징표에서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서 대조 비교하여, 그 상상점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sup>1)</sup> 하지만, 한국고대문화와 발해의 관계를 증빙하는 데에, 시대를 반영하는 미용문화를 연구하고 추정해 봄으로써, 지리적 연계성 외에 문화적 연계성이 동남아 대외교류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고대의 국가는 현대와 같은 영토의 개념이 아닌 영역의 개념으로 국경을 좌우하지 않고 서로간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는 현재 발굴되고 있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주변국의 향장미용문화에서 발해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발해의 향장과 미용문화를 유추해 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해의 사회 문화적요소중, 그 시대를 반영하는 미용문화인 두발양식, 화장 문화, 장신구, 향료 등을 사적(史的)과 유물 고증을 통해 연구해봄으로서, 발해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한 고구려 문화의 계승뿐만이 아닌 주변 토착지역의 여러 문화를 발해 인이 혼합하여 만든 창조적인 양식임을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발해의 시대적, 지리적, 인류학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발해인의 생활 문화와 고고학 자료에 나타난 발해의 국제교류증거를 통해 주변국가와의 문화적 연관성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그 주변국가의 향장과 미용을 고찰하여 발해미용문화를 유추한다.

셋째 발해와 교류를 하였던 주변국 복식과 미용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되었으며, 문헌 연구로는 발해와 그 연관성을 가지는 주변 국가에 대한 국내의 문헌들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증연구는 발해와 주변국의 복식 또는 미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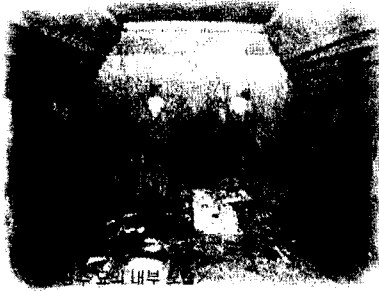
## II. 이론적 고찰

### 1. 시대, 지리적 배경

발해는 698년 대조영에 의해 건립되어 926년 거란의 침입에 망할 때까지 229년간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역을 무대로 번영했던 나라로써, 신라 측 기록에 의하면 “신라 고기에 고구려의 옛 장군 조영은 성이 대씨이니, 그는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라고 삼국유사에 남아있다.

발해는 고구려인·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만주일대의 여러 종족을 합쳐 세운 다민족국가였다. 일본의 <유취국사 類聚國史>에 의하면, 발해는 토인(土人)으로 불리는 소수의 고구려계가 지배계층의 주류를 이루었고 말갈계의 주민이 피지배층의 다수를 이룬 나라였고 하였다.

지리적 배경으로는 남쪽으로는 니하를 경계로 하였고, 신라와 접하였으며, 동쪽은 바다, 서쪽은 거란과 접하였다. 신당서에 나타난 기록으로는 발해의 영



<그림 1> <http://chang256.new21.net>



<그림 2> <http://chang256.new21.net>

토는 사방 5천리, 지금의 척도로 따지면 무려 625 km<sup>2</sup> 한반도의 30배에 이르며, 적어도 우리역사상 가장 넓었던 영역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의 조상인 고구려인과 만주인의 조상인 말갈인이 중심이 되어 넓은 땅만큼이나 다양한 삶을 일구었던 발해의 경내에는 말갈인, 고구려인, 한인, 돌궐인, 거란인, 실위인, 회흘인 등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살고 있었다.

## 2. 인류학적 배경

발해인의 얼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이 1980년에 발견된 정효공주 무덤의 벽화이다. 여기에는 공주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무사, 시위, 내시, 악사 등 12명의 벽화 인물들로 모두 남성한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오늘날 황제의 나라로써 민족의 높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발해인의 체력은 체르냐치노 제5호 발해고분의 유적 중 71호 석실분 고분골격과 정효공주묘 발굴 골격을 통해 미루어 짐작 하건데, 남성은 대략 161~165 cm 로 추정되며, 여성은 대략 156~163 cm 내외였을 것이라 추정되어진다. 이는 1930년대의 중부이남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남자 162.5 cm, 여자 149.1 cm(조선총독부 조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신장이다.

	男	女
男女 渤海의 고분유적	대략 161~165 cm로 추정	대략 156~163 cm

## 3. 발해인의 생활문화

### 1) 주생활

온들은 우리의 문화로 오랫동안 자리잡아왔으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구려 벽화 고분을 보면 주인공들이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발해의 궁전 가운데에도 왕이 잠자는 건물에서만 온돌이 발견되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상류층에서 주로 사용된 주거문화일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 2) 가족생활

세종 때에 발해인 들의 약탈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니, “발해의 옛날 습속에 따라 남자가 결혼하니 이를 금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간통죄로 다스렸다. 발해의 결혼제도는 무덤을 통해 짐작하건데, 일부일처제였음을 알 수 있다.

『松漠紀聞』에는 부인들은 모두 투기가 심하며, 사납다고 기록되어 남아 있다. 남편이 첩을 두는 것과 다른 여자와 연애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10개의 가정이 하나의 생활 단위를 이루면서 다른 집 여자들의 생활에 관여할 정도로 여성의 힘이 강하였던 것은 발해의 가족생활에 여성의 역할이 중대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라 할 것이다.

### 3) 종교

발해의 대표적 종교는 불교였다. 발해 불교의 전통이 고구려에 있었음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분명한데, 절터에서 발굴되는 연꽃무늬의 와당과 그의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을 탑 양식으로 지은 후 그 앞에 절을 만든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발해가 멸망한 한참 뒤에 금나라 황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도 발해 유민들의 영향이 컸다. 이 밖에 기독교의 흔적이 유물을 통해 남아있고, 우리문화의 오랜 전통의 맥을 잇는 샤머니즘을 숭상하였을 것이

라는 추측도 해봄직하다.

4) 놀이문화

발해인들은 용맹하고, 활달하였으며, 활쏘기, 打毬, 擊毬에 능했다. 타구는 원래 페르시아로부터 당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공놀이를 하는 놀이문화로 발해에까지 전해졌다. 이는 동남아 네트워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사료된다.

격구는 말을 타고 하는 놀이로 발해인 들은 용맹스러움이 인식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발해인 들은 이처럼 즐거울 때, 춤추고 흥겹게 노래를 하며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민족으로써 우리 조상의 맥을 잇는 기질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국제교류를 통한 고고학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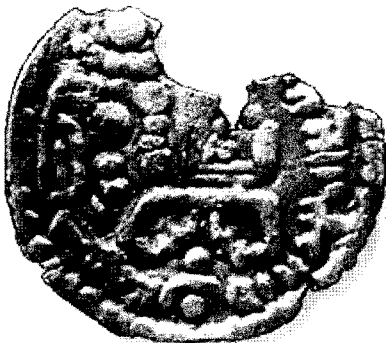
발해는 문화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중앙아시아, 당나라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현재 발해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문헌자료를 통한 연구가 이를 증명해준다. 또한 일부재야 학자들은 발해의 원류를 중앙아시아에 거주했던 소그드인과의 연고나성에서도 찾고 있다. 이는 발해의 흔적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성향이 매우 다국적이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미용문화도 이러한 성격을 띠어 주변국의 미용문화를 통하여 주변국의 미용문화를 유추할 수 있음을 문화교류의 증거인 고고학 자료를 제시하여 그 타당성을 찾고자한다.

1. 중앙 아시아와의 관계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는, 동서문화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유라시아 대륙의 각지에서 출현한 문화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전하여져, 다양한 문화변용을 겪으면서 각자의 문화향상 및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선사시대부대부터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 제 문화는 전 근대 한국 기층문화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sup>2)</sup> 흔히 투르크스탄(‘투르크인의 토지’라는 뜻)이라고 불리우는 중앙아시아는, 파미르를 정점으로 그 동측을 동투르크스탄, 서측을 서투르크스탄이라고 칭하고 있다. 동투르크스탄은 현재의 중국 신강(新疆)위구르자치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를 통하여 실크로드의 요충으로 변영하였으며, 전 근대의 동서문화교섭에 있어서도 매우 독특한 특색을 지닌 역사세계였다. 이에 비하여 파미르 이서의 서투르크스탄은 구 소련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직키스탄의 다섯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이란계인 타지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르크 계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실크로드라 하면, 이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를 경유하는 길-소위 오아시스 루트-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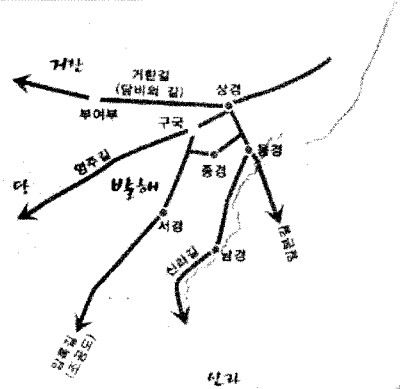
실크로드는 동서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발해에서도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문화교류의 흔적이 몇몇 유물에서 나타난다.

발해의 옛성 노보고르데에프성 취락지에서 출토된



<그림 3> <http://minihp.cyworld.com/>

발해의 국제교통로 5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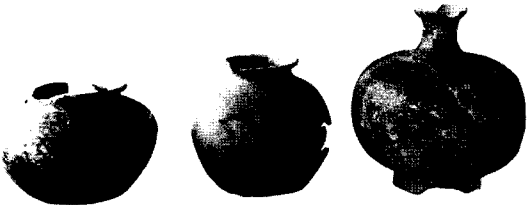
<그림 4> <http://minihp.cyworld.com/>



<그림 5> 평양시대성구역발굴  
고구려토기(국립중앙  
박물관)



<그림 6> 평양시대성구역발  
굴고구려토기(국립  
중앙박물관)



<그림 7> 고려대박물관소장 발해 성터의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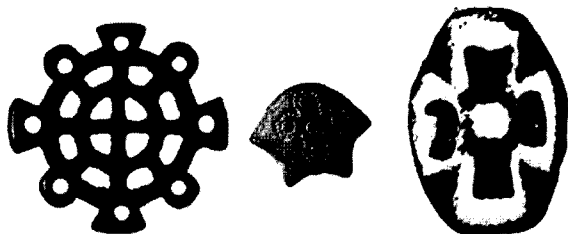
중앙아시아 소그드인의 은화가 많이 발견됨을 볼 때 당시 발해와 중앙아시아 간의 교역이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2. 고구려와의 관계

인간의 의·식·주는 문화를 살펴보는 잣대로써 매우 주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는데,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평양성시대구역에서 발굴된



<그림 8> 경주 불국사에서 출토된돌십자가,  
7~8세기



<그림 9> 7~8세기 발해의 술빈부아브리코스절터에서 출토된 십자가

토기와 고려대 博物館에서 전시된 渤海의 토기(위)와 청동머리핀. 러시아과학원 연구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러시아 연해주 고르바트카 발해성터 등에서 발굴한 것들로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3. 통일신라와의 관계

신라와 발해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사실은 한국사 속의 남북국시대가 갖는 민족사적 의미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국의 관계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통일신라와의 고고학적 근거자료로 7-8세기 통일신라시대에서 나타난 십자가와 발해절터에서 발굴된 십자가로 미루어 기독교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4. 당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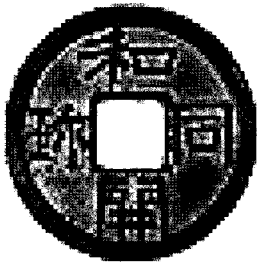
3대 문왕이 즉위한 후 문화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복의 형태도 당나라의 요소가 이입,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정효고주묘의 벽화(壁畵)의 관복에는 당나라 무덤벽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발해인의 독특한 예술장식의 문양이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일본와의 관계

발해와 고대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친밀한 외교관계를 지속했으며 727년 이래 약 200년 동안 발해와 일본은 사절 왕래가 확인되고 있다.

약 200년 동안 발해와 일본은 사절 왕래가 확인되고 있다. 담비는 예로부터 밍크를 능가하는 최고의 동물로 손꼽혔는데, 727년 일본과 국교를 맺기 위해, 동해를 건넌 발해사신이 무려 300장의 담비 모피를



<그림 10> 渤海에서 쓰이던 일본화폐 화동개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라는 성격뿐 아니라, 발해 국가의 존립 그 자체와도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일본과의 고고학적 근거로 화동개진이라는 화폐는 일본과의 교류를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IV. 미용문화고찰

##### 1.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미용문화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민족문화를 창조 하듯이, 발해의 미용문화도 문화 원유의 기초 위에서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 사회, 문화적 생활에 많



<그림 11> 새롭게 본 발해사 p.186



<그림 12> 한국문화컨텐 츠진흥원

은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발해의 건국시점에서 멸망 기까지 지배계층에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고구려인이었고, 발해 유물의 상당수가 고구려 양식인 점으로 보아 발해초기에는 고구려의 문물제도를 그대로 계승했을 것으로 예측된다.<sup>3)</sup>

발해의 미용문화 중 발해 건국시기와 가장 관련 있는 벽화 인물로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 벽화 인물과 장회태자 이현묘 벽화에 묘사된 인물의 의복과 두발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밑의 그림에서 보여 진 벽화의 연대는 7세기 말~8세기 초의 우리나라 사절의 모습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아프라시아 한인과 장회태자 묘의 한인이 쓰고 있는 관모는 조우관의 변형된 우리 고유의 고깔형태의 관모에 새의 깃이나 새 꼬리를 꽂아 장식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당시의 계급구분의 수단으로 생각되어지며, 귀족계급에서만 사용되었던 상징적 신분표시의 고구려 문화의 계승이라 여겨진다.

최근의 발해사 고고학 가운데 중대한 발견은 정혜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발굴을 들 수 있다. 두 공주의 무덤 양식 중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벽화인데, 발해인의 생동하는 형상을 나타낸 두 무덤 중 정효공주묘의 벽화는 발해의 복식과 미용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물자료가 되고 있다.

벽화는 1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무덤 안길에는 문지기가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의 안악 제3호 무덤, 안악 제2호 무덤, 쌍기동 무덤 안길에 문지기가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실례의 하나이다.

정효공주 묘의 벽화에 보여 지는 두발양식 또한 고



<그림 13> <http://myhome.naver.com/godaesa>

구려의 것과 흡사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벽화 인물들의 머리꾸밈 방식이다.

머리를 빗어 쪽지고 말액으로 머리를 들렀거나 두 날개를 교차시킨 머리 수건을 사용했는데, 머리 수건에는 끈이 보이지 않는 것과 두 가닥의 끈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투구를 쓴 인물과 두 가닥의 머리수건을 쓴 인물들이 고구려 복식과 미용 풍습을 계승하였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보편적인 양상인 화장법은, 정효공주 무덤 벽화의 인물의 얼굴에도 나타나는데, 뺨이 둥글고 얼굴이 통통하고, 가는 눈썹과 입술을 붉은색으로 하였으며 얼굴에 분을 바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발해의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데 매우 중시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구려 여성들도 화장을 중요시 하였는데, 호화로운 장방의 좌상에 앉아 있는 고구려안악 3호분벽화의 왕비그림에서 풍만한 얼굴과 눈초리가 올라간 가느다란 눈매, 얇은 눈썹, 붉게 칠한 작은 입 등은 발해여성의 화장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겠다.

화룡현 북대 발해무덤에서 구리거울이 나온 것과 청해토성에서 출토된 머리빗, 비녀,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의 장신구의 유물들을 통해 발해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화장품을 사용했음을 실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금반지, 금귀걸이, 금팔찌

등은 평민이나 하층계급의 소유가 아닌 귀족중심의 화장 문화였을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고 하였을 때 화장습관과 장신구의 착용 등은 고구려적 요소가 많은 부분 차지하였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연합뉴스 2006-05-27에 의하면, 북한 발해시대 고분벽화사진이 공개되었다. 석실봉토분(돌칸 흙무덤) 형식인 이 금성리 고분벽화에는 등장인물 모두가 무릎아래 일부 모습만 남기고 있지만, 발해시대 복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신선의 그림으로 확인된 벽화의 그림에는 흰 각반을 차고, 검은 신발을 신은 사람의 다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발해복식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민지씨에 의하면, 신선벽화의 그림은 6세기고구려고분벽화인 오회분 4호묘 등지에 등장하는 주제이며, 흰 각반을 차고, 검은 신발을 신은 인물의 그림은 같은 시대 발해의 정효공주묘 주검간의 동서 벽 남단에 묘사된 시위들의 포와 바지, 신발차림을 연상케 한다고<sup>4)</sup> 한다.

금성리 고분벽화는 북한에서 처음 발견된 고분벽화로 발해사의 복원에 있어 우리민족의 역사를 입증하는데, 좋은 유물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미용문화에 있어 향기에 대한 중요성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발해의 향로는 발해인이 향(香)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발해시기에 향로가 출토된 곳은 흑룡강성 녕안현과 향로 자리로 발견된 묘문 절간자리가 있다.<sup>5)</sup>

발해의 불교는 건축초기부터 유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며, 고구려의 중요 지역이었던 발해의 중경, 동경 등지에서는 고구려 불교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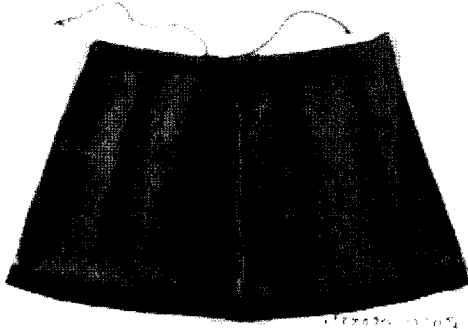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공향의식인데, 불교와 아울러 주로 종교의식용 향료가 전래된 외에, 일상용 향료도 교역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고구려에서는 이미 향의 사용이 보편화 되었다는<sup>6)</sup> 점에서 볼 때 고구려의 불교문화와 함께 발해의 향의 전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 향수, 향료 분야에서도 전대의 발달된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본다면 발해의 향료 문화가 고구려로부터 유래된 향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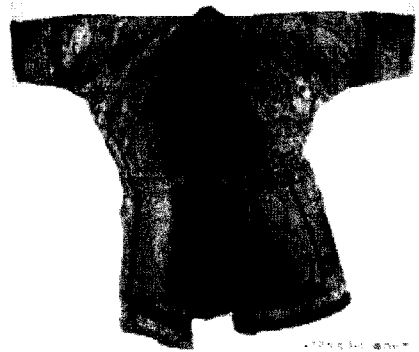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함경북도 화대군 정문리 창덕3호 무덤에서 발견된 발해시기의 유물로써, 태환식 금귀걸이다. 순 금판을 말아서 만든 큰 고리에 금을 입힌 작은 청



<그림 14> <http://www.militaryreview.com>



<그림 15> 새롭게 본 발해사 p.203



<그림 16> 새롭게 본 발해사 p.204

동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고리에는 순금판으로 만든 표주박 모양의 드리운 장식이 달려 있다. 발해의 귀걸이로서는 처음 알려진 것인데 고구려 무덤 등에서 나온 고구려 금 귀걸이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아 발해의 미용문화는 고구려의 계승된 양식임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 2. 말갈인의 영향을 받은 복식과 미용문화

발해가 건국된 곳은 원래 말갈족의 거주지였으며 말갈족이 발해사회의 저변을 이루었으므로 발해의 복식과 미용문화에는 말갈족의 요소들도 공존했을 것이다.<sup>7)</sup>

말갈족은 속신과 읍루때에는 돼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여름이면 벗겨벗고 작은 천을 행주치마처럼 만들어서 몸의 주요한 부분을 앞뒤로 가렸다.

또 불길의 습속에는 남자들은 돼지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부인들은 마포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습관이 있었다.<sup>8)</sup>

발해 영토의 기후 조건은 매우 추웠으므로 발해에 흡수된 말갈 인을 중심으로 어업과 수렵이 행해졌다. 이러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모피를 의복으로 착용하였고, 모피 또한 매우 발달하여 당나라, 일본 등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발해의 산업 중 담비가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으며, 시베리아에서 발해를 거쳐 일본으로 연결되는 모피 교역로를 상징하고 ‘담비의 길’이라 명명할 만큼 발해는 모피의산지로서 이름을 떨쳤다.

마포와 가죽으로 옷을 입는 사회적 계층은 주로 평민이었으나, 가죽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나누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가죽의 종류 중 소, 돼지,

양, 개, 고양이 등은 평민층이 주류를 형성하였을 것이고, 여우, 담비, 호랑이 가죽 등의 고급 가죽은 부유한 사람들의 전용물이었을 것이다.

발해는 동해에 인접해 있었으므로 수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고, 동물의 가죽이나, 어피와 같은 의료를 수출하였다.<sup>9)</sup>

치어, 해표피(바다표범)의 가죽, 교어피 등이 옷이나, 신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교어피는 그 실물을 잘 알 수 없으나, 후룡강 중 하류에서 잡히는 대발합어(大發哈魚)의 껍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변기략>에 대발합어(大發哈魚)의 껍질은, 색상이 옅은 황색으로 무늬가 있는 비단과 같고, 오시나 버선,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일에 종사하는 종족들은 어피달자(魚皮韃子: 고기로 옷을 만들어 입는 동북종족의 뜻)이라 하였다.<sup>9)</sup>

여진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허리에는 띠를 둘렀으며, 발에는 검은 가죽신을 신는 것을 즐겼고 겹옷으로는 깃을 둥글게 만든 도포를 입었다.<sup>10)</sup>

## 3. 당나라와 발해의 미용문화

초기의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발해문화가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문화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당의 문화적요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발해의 미용문화는 8세기 중반이후에 당나라의 복식과 미용문화가 중심을 이루면서,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어갔다.

발해여성의 복식과 미용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1998년 길림성 용두산 부근에서 발견된 삼채



여용 2점과 러시아 연해주에서 발견된 청동여인상이 다. 삼채여용과 청동여인상의 옷차림과 머리모양 등은 부유한 사회계층의 여성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당나라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의복형태와 머리모양과 흡사하다. 의복에 있어 두 여용이 입은 의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로 그 창작 방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복식과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비교적 간소한 차림의 두 여용은 저고리 목둘레선이 몸의 선을 따라 흐르고, 둥글게 앞 가슴부위까지 내려갔으며, 치마의 허리선은 가슴위로 높이 올라가 끈을 여미었고, 길이는 바닥을 끌릴 정도의 길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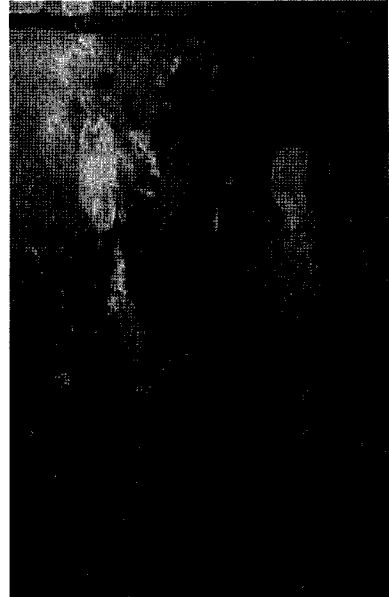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의식 및 장식에 관한 고찰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질 이상은 자줏빛 관복을 입고, 상아홀과 금어대를 휴대한다. 5질 이상은 주홍빛 관복을 입고, 상아홀과 은어 대를 휴대한다. 6질과 7질은 옅은 주홍빛 관복을 입고 나무홀을 휴대한다. 8질은 녹색관복을 입고 나무 홀을 휴대한다.<sup>11)</sup>

관료들은 지위에 따라 자주색, 붉은색, 옅은 붉은색, 녹색의 관복을 입었다. 벽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옷의 형태는 포(袍)라고 불리는 단령이었고, 단령은 당나라를 비롯하여, 그 주변나라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었다. 관복을 사료와 유물자료로 복원해 본 결과, 관복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와는 달리, 곡령의 형태는 고구려에서 계승된 우리고유복식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문양이나, 디테일한 요소 등에서 당 문화에는 없는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가 창조되었으며,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페르시아지역의 전통복과도 매우 흡사한 형태가 보여 집에 따라 유권 해석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한다고 생각이다.

#### 4. 삼국과 통일신라를 통해본 발해의 미용문화

현재 발해의 대표적 유물 중 청동여인상과 여용의 머리모양방식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와 통일신라의 여성의 머리형태가 발해여성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영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당서’에 보면 고구려의 여자들이 가발을 사용하여 크게 엷은머리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었고, 모발을 뒷머리로부터 앞머리로 감아 돌려 끝머리를 앞머리 가운데로 꽂거나, 엷은머리, 쌍계와 쌍 상투 등으로 종류를 다양히 하였다고 하였으며, 백제 또한 여인의 두 발양식에서 머리를 두 갈래로 땀아 머리를 틀어 올렸



<그림 17> <http://artsonline.arko.or.kr/trart/k1>

다.<sup>12)</sup>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의 문화를 융합하고 계승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쌍상투 모양의 머리모양은 미성연자에게서 인기가 있었다.

머리모양에 있어 이마위의 정수리 부분에 상투를 매어 앞으로 두리운 여용의 모습과 청동여인상에서의 쌍상투형식의 머리모양은 볼 때, 발해에서도 쌍상투 형식의 머리모양이 여성들에게 즐겨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 5. 발해의 독자적인 복식과 미용문화

발해 사람들은 광물과 식물에서 색소를 취재하여 염료를 만들었고, 홍화, 쪽두 서리, 소목 등으로 염색하기도 하여 오색찬란한 의복을 제작하여 입었다.<sup>13)</sup>

특히, 무척추운 기후의 발해이 지역적 특징 때문에 동물의 모피를 이용한 의복의 착용이 행해졌다. 모피는 혹한추위를 이기고, 수렵생활을 하는 발해인에게 야외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또한 화장 문화에 있어서도 북방의 읍루인은 돼지기름을 발라 추위와 혹한에 피부가 갈라지고 트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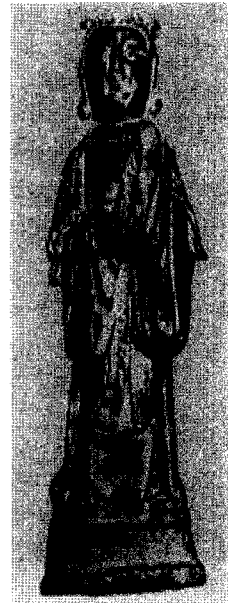
또한 발해는 수산업의 발달과 함께 어패류를 의복에 활용하였는데, 바다표범, 교어피(대발합어), 해표피, 치어 등이 의복에 사용되어졌다. <유변기략>에 “대발합어의 겹질은 색상이 옅은 황색으로, 무늬가



<그림 18> 발해의 문화 p.160



<그림 19> 발해의 문화 p.161



<그림 20> <http://blog.empas.com>

있는 비단과 같고, 옷이나, 버선, 신발을 만들 수 있다'고 기록되어있다.<sup>14)</sup>

벽화나 유물에서 나타난 인물들의 의복에서 직조 기술의 특징을 알아 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벽화의 인물이나 삼채여인상의 복식의 소재가 어피류의 발달된 발해만의 고급소재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해본다.

### V. 결 론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기본으로 한 말갈 문화와 당나라 문화, 비록 문헌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부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던 '담비의 길'도 상정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여러 주변국가의 문화를 흡수했던 발해는 발해 특유의 다양한 요소들로 복식과 미용문화가 복합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던 발해사는 「한국의 왕조사에서는 제의 당하였으나 민족통합과정으로 보면 한국사에서 발해사의 위치는 중요하다고 본다.」<sup>16)</sup>

중국은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국사복원준비를 해왔으며, 발해에 대해 당나라 때 중국동북지역

에 말갈족과 다른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으로 왜곡하면서 발해를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는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다.

발해인이 이룩한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이 시점에서 발해인이 7세기 말엽에서 10세기 초엽까지 동북아시아의 한 넓은 곳에 살았던 우리민족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은 이 시대의 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의복과 머리모양, 화장, 장신구 등은 그 시대 사회를 반영하는 시각적 상징이라 할 때 발해 복식과 미용문화는 사회, 문화적 현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되어진다.

발해의 복식과 미용문화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구려 무덤벽화, 당나라무덤벽화, 말갈족의 무덤벽화나 유물들을 서로 대비하여, 고증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무덤벽화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능히 대비할 수 있고, 당나라 공주의 무덤이나, 의덕태자, 장희태자무덤 등에 그려진 벽화의 인물의 모습, 옷차림, 머리 형태, 화장 문화, 장신구등과도 서로 대비 연구하여, 유사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발해국이 건립되기 전 까지 말갈족 자체가 남겨놓은 무덤이나 유물 등이 없기 때문에 발해의 복식과 미용예술이 말갈족문화를 계승하였는가, 계승

하지 않았는가, 유사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

발해는 고구려의 복식과 미용문화와 말갈족의 옷차림과 습관 등을 기초로 하고 당나라의 복식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발해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복식과 미용문화를 창조하였다. 하지만 북방의 흑수말갈과 변원 지구에 거주하는 말갈족의 옷차림은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발해의 복식과 미용문화는 고구려의 복식문화를 토대로 하여 발전하고, 당나라 복식과 미용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출토된 유물, 유적과 사료 등을 종합해 보면 고구려의 성격을 반영하는 여러 자료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벽화에 그려진 발해인의 모습에서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인의 복식과 미용문화를 찾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가늠하여 발해가 우리민족의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복식문화가 東北亞 지역의 네트워크에 얼마나 활발히 전개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며, 그 동안 역사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편향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후기에 실학자들이 발해의 역사를 재발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준 덕분에 200년 뒤의 후세 연구자들이 자신 있게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고 또 연구할 수 있듯이<sup>17)</sup> 복식과 미용문화를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 또한 우리의 역사와 복식과 미용문화를 준비하고 연구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인 발해사를 찾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정지현, 한규철, 이남석, 문명대, 김정희(2005).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 고구려연구재단, p. 24.
- 2) 문내열(2000). 실크로드 3000년전. 온양민속박물관 신강위구르자치구문화사업관리국. p. 208.
- 3) 구난희, 김동우, 김은국, 김종복, 김진광, 박진숙, 윤재운, 이병건, 임상선, 전현실, 한규철(2004).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p. 185.
- 4) 동아일보(2006). 05-29.
- 5) 방학봉(2003). 「발해의 향로」, 천지출판, p. 185.
- 6) 이미화(1994). 「향집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
- 7) 방학봉(1989). 「발해사 연구」, 정음사, p. 154.
- 8) 방학봉(2005). 「발해의 문화」, 서울: 정토출판사, pp. 125-130.
- 9) 고구려연구재단(2005). 새롭게 본 발해사, 고구려연구재단, p. 203.
- 10) 방학봉(2005). 「발해의 문화」, 서울: 정토출판사, pp. 125-130.
- 11) 유득공 저 송기호 옮김(2000). 발해고, 홍익출판사, p. 123.
- 12) 권태신, 김계순, 김미선, 노영희, 박성희, 양진희, 오인영, 유현주, 장예선, 정혜령저미용학개론 청구문화사(2007) p. 29-30.
- 13) 방학봉(2005). 「발해의 문화」, 서울:정토출판사, p. 175.
- 14) 방학봉(2005). 「발해의 문화」, 서울:정토출판사, p. 131.
- 15) 송기호(1999). '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p. 127.
- 16) 이동운(2004). 「발해의 종족 구성과 신라의 발해관」,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2.
- 17) 송기호(1999). 발해를 다시 본다, 주류성, p. 241.